

# 철도와 문화의 융합



김동건 한국철도학회 제 5대 회장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

한국철도학회가 창립된 지 20년이 흘렀다. 그 동안의 놀라운 발전과 성과에 축하를 보내며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필자가 제 5대 철도학회 회장 시에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했는데 그때가 눈에 선하고 그 후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더욱이 지금부터 9년 전 철도학회의 이런저런 지원 속에 (재)한국철도문화재단이 설립되고 필자가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지금까지 철도문화의 창달·보급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철도학회가 보여준 여러 협력에 감사함을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다.

그러하기에 여기서는 철도와 문화 간의 관계 중요성을 간략하나마 논하고자 하며, 제목도 금년 5월 부산에서 열린 학회 정기학술대회의 주제가 “철도는 융합이다”였음을 상기하며 “철도와 문화의 융합”이라는 타이틀을 감히 잡아 봤다.

몇 해 전 김정운 전 명지대 교수(현재 여러가지 문제 연구소 소장)가 출간한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이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은 놀 줄 알아야 성공하며 놀 줄 모르면 본인은 물론이고 한국마저 망한다고 한다.

21세기에 필요한 것은 “노는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삶속에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리 삶의 가치를 경쟁·효율·평등·정의 등등에 두고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여기에 문화가 첨부되어야 삶의 질을 높이면서 제대로 된 경제적·사회적 에너지를 창출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 질 것이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명연설을

남겼는데, 여기에 문화적 요소가 한마디 담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속에서 문화를 철도라는 환경에 연결시켜 보자. 역사적으로 철도는 문화라는 측면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다. 철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영화는 무수히 많이 있어 왔고 또 우리나라 유행가에 철도가 들어가는 노래가사가 얼마나 많은가. “비 내리는 호남선”, “대전발 0시 50분”, “이별의 부산 정거장” 등 수없이 많다. 그러나 정작 철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는 저렴한 대중적 교통수단의 하나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과거 일제 점령시기에는 철도건설이 식민 착취의 수단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해방이후에는 철도청에 의한 독점적 운영이었기에 고객서비스는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많은 수의 인원과 화물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실어 나르느냐에 초점을 두어 왔다. 철도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철도에 문화 콘텐츠를 포함시키는데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한국철도가 개통된 지 100년 이상 경과하는 2004년 고속철도 개통, 2005년 한국철도공사 출범이후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철도에 문화를 연계시켜 철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람마다, 정부마다 철도서비스에 대한 개념 및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첫 번째 하나가 철도는 어디까지나 서민을 위한 교통수단이며 따라서 철도는 저렴하게 대중화된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이다. 모든 계층에 평등하게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철도의 공공성이 강조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분히 사회주의적 사고이며 여기에 고질의 문화적 콘텐츠가 들어갈 자리가 많지 않다. 두 번째 인식은

다분히 효율성을 중시하는 서구 자본주의적 시각이다. 대부분의 유럽 및 일본의 철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즉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방식의 매개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철도가 여가의 수단이 되고 철도를 통해 많은 추억, 사랑, 정신적 위로를 얻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마련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요금체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철도의 거버넌스(governance)는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되어 효율을 강조하는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철도문화가 우리의 삶속에 자리잡으려면 철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할 수밖에 없다. 철도의 공공성 측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속철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발전되고 문화적 생활이 마련되기 위해서 이에 상응한 재원 마련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철도운영회사 및 고객(사용자) 모두가 함께 참여한다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한국철도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9년이 지났고 그 동안 철도문학상 시상, 철도문화 유산 발굴, 철도박물관 설립을 위한 기본 구상연구 등 이런 저런 일들을 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사업성과가 미흡할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철도에 대한 인식이 선진화되면서 철도문화의 중요성이 자연히 부각되면 다양한 문화 사업이 마련될 것이라 믿는다. 특히 내후년(2019년)이면 한국철도개통 120년이 될 터인데 그때까지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과 유사한 규모의 철도 박물관 건설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철도 120년을

기념하는 120년사 같은 역사기록이 완성되기를  
희망한다.

거듭 한국철도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축하와 발전을 기원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